

# (주)무진서비스 최은모 회장, 지스트 발전기금 2억 원 기탁식 및 현판 제막식

- 우리나라 과학기술 발전과 글로벌 융합인재양성을 위해 쾌척



▲ 최은모 회장(왼쪽)이 지스트에 발전기금을 기탁하고 김기선 총장과 기념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주)무진서비스 최은모 회장이 과학기술 발전과 글로벌 융합인재 양성에 써 달라며 지스트(광주과학기술원, 총장 김기선)에 발전기금으로 2억 원을 기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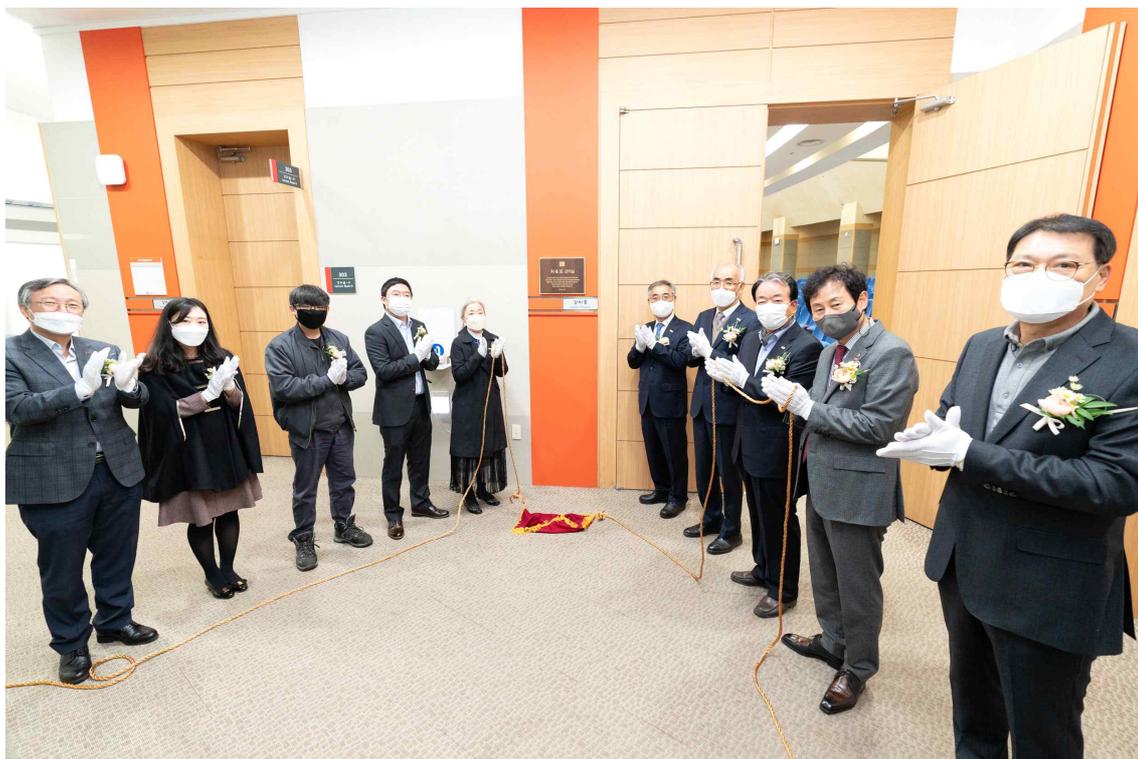
기탁식은 11월 11일(목) 총장실에서 김기선 총장과 김영집 대외부총장, 고정주 지스트 발전재단 이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최은모 회장은 지스트 발전재단 이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지스트에 기 전달한 1억 원에 이어, 이번 2억 원을 추가로 전달함에 따라 총 3억 원의 기부금을 기탁하였다.

(주)무진서비스는 배터리 생산 및 자동화 장비 생산에서 꾸준한 성장을 이루고 있으며, 매출 중 수출의 비중이 80% 이상으로 매우 높아 광주 최고의 수출기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최은모 회장은 우리나라 배터리 제조설비 기술을 글로벌 탑3 수준으로 이끌어 올린 배터리 제조설비 분야의 45년 경력의 숙련된 기술자이자 기업가이다.

이날 기탁식에서 최은모 회장은 "지역사회에서 지스트의 역할이 크다고 생각하고, 지스트가 글로벌 융합인재를 양성하여 우리나라 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하길 바란다"며, "여러분들도 기부로 인한 행복을 찾았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지스트 김기선 총장은 “지스트의 가족이신 최은모 회장님의 기부에 감사를 표한다”면서, “쾌척해 주신 기금으로 국가에 기여하는 과학기술 개발 및 인재 양성을 통해 지스트가 세계의 중심에 우뚝 설 수 있도록 소중하게 사용하겠다”고 고마움을 표시했다.



▲ 지스트 오룡관에서 최은모 강의실 현판 제막식을 진행하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지스트는 발전기금으로 1억 원 이상 기탁 시, 강의실 네이밍과 원내 체육시설 및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예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